삶에서 내가 내게 하나님을 설교하자

(고린도전서 8:1~6)

1.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4.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삶에서 내가 내게 하나님을 설교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삶에서 내가 내게 하나님을 설교하자”

요즘에는 오늘의 번제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게 설교하라는 뜻입니다. 한 달 휴무를 지내는 동안에 나는 내게 계속 설교를 했어야만 진짜입니다. 설교를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도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하

였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해놓고도 구원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사명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설교한 내용을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 들은 바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그 지식은 백해무익합니다. 무익한 것만이 아니라 백해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반드시 내가 내게 설교하는 재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게 설교하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접근방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13절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절반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율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방법이란 무엇을 해야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신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요약해보면 그 인격이 지식과 사랑의 관점에서 올바르다면 마땅히 형제를 배려하는 태도로 열매 맺혀지리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식과 사랑이 올바른 인격의 나무에서는 마땅히 우상의 제물과 연관지어서도 형제의 실족을 염려하여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지식과 사랑의 연관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아닌 지식과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올여름에는 무더위와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방송이 휴무인 한 달 동안 사시면서 십자가 생활화가 어느 정도로 밀도 있게 이어져갔습니까? 한 달 동안에 천국이 얼마나 찐한 현실감으로 유지되었습니까? 설교가 멈추고 있었던 동안에 삶의 현장이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본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촬영 현장과도 같았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촬영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이었습니까? 이

세상이 현실이었다면 천국은 현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국과 이 세상 삶의 현장이 동시에 현실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휴무 동안에 십자가 생활화를 밀도 있게 해온 분은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시 자세를 수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사도 바울은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4절과 6절에서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랑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언급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형제들에 대해 배려하라는 내용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이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을 연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의 제물 또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릴 때는 단지 고기일 뿐 우상과 관련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으며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며 우상숭배를 위해 온갖 못된 짓을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상에 대해 넌더리를 느끼

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시작단계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것을 보게 되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 동안 고기도 먹지 않겠다는 배려를 보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러한 배려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막연히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사랑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웃을 향하여 덕을 쌓는 대신에 나 자신을 교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2절과 연결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포함시켜서 다시 써보자면 "하나님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알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사랑은 나타날 수 없으며,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이웃에게 덕을 쌓는 배려도 나타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식에 머무른다면 지식의 곳간 안에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을 보태서 나의 지식의 토대를 높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고 교만한 자로 만드는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지식은 하나님 사랑의 밑천이 됩니다. 지식을 밑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밑천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지식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곳간 안에 쌓아두고 나를 높이는 토대가 된다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

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4절과 6절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약해보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가 있지만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이시며, 그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모든 삼라만상을 있게 하셨으며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총괄이고 요약이고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식에 대한 최고봉은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 하나님이 이 세상 삶에 대한 유일한 주체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고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값지고 더 강력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 하나님의 유일한 주체성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신들도 아는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아는 우리와 귀신의 차이점은 사랑입니다. 귀신들은 이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물론 귀신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기에 하나님의 선민들을 대적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마음의 의식 작용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의 존재감을 먼저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을 알고 있는 귀신들이 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민들을 망가뜨림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좋음이 아닌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셔서 있게 하신 피조물의 좋음을 부각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선민들이 하나님을 욕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욕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귀신들과는 용도가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십니다. 세상의 삼라만상은 하나님에 의해 있게 된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유일한 좋음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체이십니다. 이 유일한 있음이시고 좋음이시고 주체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길이 예수

님 안에서 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합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에 대한 배려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밑천으로 하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에 대한 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선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곳은 예배당이 아닌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시장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음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체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대하고 있을 때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 또한 선민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의식 작용이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 대신에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을 있음으로 느끼게 하고 우선적 존재감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욕구 작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을 벗어나서 피조물의 좋음을 욕구하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이렇게 선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장소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밑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밑천으로 활용되지 않고 기억의 곳간 안에만 남아있게 된다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음이 나를 망치고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랑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서도 지식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아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밑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내게 설교할 수 없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있음이라는 진리에 반역하는 말씀들이 나를 둘러싸고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좋음이시라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바랄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이 진리에 역행하는 말씀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직장 동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좋음으로 느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재물과 승진이며, 그가 느끼는 것은 사장님의 존재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외의 있음과 좋음에 사로잡힌 자들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도전적으로 전달되어 옵니다.

이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환경에 적용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말과 행동,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을 느껴서 하나님의 존재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을 느껴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유일한 주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면 세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온통 하나님의 지식에 반하고 역행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음이셔서 의식과 욕구가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참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은 이 유일한 참지식에 역행하는 말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게 하나님의 지식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나를 둘러싼 하나님 지식에 역행하고 있는 세상의 말씀에 먹혀버리게 됩니다.

전철을 타면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연결된 이어폰을 꽂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 이외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밑천으로 내가 내게 설교한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이어폰을 통해서 내게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내게 설교한다는 것은 하나님 지식을 듣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역행하는 말씀들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는 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

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지식에 역행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세상의 말씀들을 듣다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식도 잃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은 행보를 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는 이유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시다. 그러므로 있음을 느끼는 나의 의식 작용은 하나님을 향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음이시다. 그러므로 좋겠다는 바람은 하나님을 향해야만 한다. 또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체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있게 하셨기에 나 스스로 반응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체성을 뭉개버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게 하나님의 지식을 설교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으시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인 지식을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듯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설교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침전물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삶의 현장에서 설교방송을 통해 들은 지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을 보면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네게 있는 믿음"이란 여러분께서 방송을 들으시며 아멘으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 앞에서 진행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시다.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들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음이시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좋음은 하나님 자신뿐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밑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친화적이지 않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적응할 수 없는 체질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내게 설교할 때에 나의 인격적 체질의 상태가 밝히 드러납니다. 내

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한 있음으로 느끼기보다는 피조물의 있음을 먼저 느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나타나면 사장님을 느꼈습니다. 돈 문제가 나타나면 돈을 느꼈습니다. 건강문제가 생기면 건강을 느꼈습니다. 자녀문제가 생기면 자녀를 느꼈습니다. 배우자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를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있음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대상들의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내가 내게 설교할 때에 이러한 죄의 체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들은 바 하나님의 지식을 기억해서 내게 가르치는 설교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이 기억의 곳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되살려 켜놓고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설교할 때에 나의 죄악 된 체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내게 설교하기를 통하여 그 설교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드러나는 죄적인 체질이 깨달아집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죄적인 체질의 뿌리 깊음과 지독함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식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의식 작용과 욕구 작용과 주체성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십자가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죄적인 체질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과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과 하나님의 유일한 주체성이라는 인생 최고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는 새로운 내용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과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과 하나님의 유일한 주체성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내용의 설교가 아니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인격상태가 유지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지향해왔던 내용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설교를 원했지만 인격의 상태는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먹히고 세상에 지배되고 세상

의 있음과 좋음만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성을 살려 나갔습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설교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똑같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설교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지식의 빛 아래에서 보게 된 나의 죄악 된 체질로 인해 붙잡게 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반복해서 설교하고 듣고 또한 나 자신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는 중에 나의 인격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새로워진 인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형제에 대한 배려입니다.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지라도 형제를 배려하겠다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인격 됨은 똑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지식을 들은 바대로 자신에게 끊임없이 설교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치 이어폰을 꽂은 것처럼 자신에게 설교를 할 때 인격은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새로워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처럼 대단한 보물은 없습니다. 이 보물을 장롱 안에 넣어두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마르고 닳도록 날마다 써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설득시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드러나는 나의 죄악 된 모습 앞에 좌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순행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게 함을 깊이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